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당회: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② 이삭줍기 주일: 오늘은 이삭줍기 주일입니다.

③ 기도회: 화요기도회가 7시 30분에 Duke Institute에서 있습니다. (12-14 Huron street, Takapuna)

④ 월례회: 1여선교회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⑤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⑥ 찬양 경연대회: 공동체별 찬양 경연 대회가 3월 30일(수)에 있습니다. 공동체별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⑦ 모임: 오늘 1부 예배 후 각 공동체 인도자 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⑧ 협력: 지진으로 피해입은 교민들을 돕기 위한 생필품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선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속옷, 쌀, 양말 등)

⑨ 훈련: 낮은 울타리에서 주관하는 홈스(HMMS:Healing of Mediaholc Ministry School)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치유와 회복의 역동성을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기간: 2011년 3월 3일 - 5월 12 (목요일 11주간)

시간: 저녁 7시 - 10시 장소: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인원: 30명 회비: \$50 (등록비, 교재비, 간식비)

3월 예배담당 안내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6일	최득수	최장한	김봉희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3일	김교섭	김성희	김선영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0일	김영길	진혜령	김선화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7일	정관영	김정민	김성희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지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지역)

국내 선교지

▷City Mission 섬김
▷밀알장애우 봉사



3월 교회일지

사순절 첫째 주일:

3월 13일(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3월 20일(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3월 27(주일)

공동체별 찬양경연대회:

3월 30일(수요일)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지진으로 충격에 빠져 있는 시민들이 용기와 소망을 가지도록
2. 지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한인교회가 협력하여 도울 수 있도록
3. 뉴질랜드 정부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4.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한번 새기며 한국땅을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협동장로	: 유송재
지휘	: 신경화
반주	: 유지선, 조은유, 한누리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2월 27일

주보 13권 9호

www.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반주자
전주		
예배로 부를	베드로후서 3:12-13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19장 (구 44장)	다함께
*성서교독	16 시편28편 (구 11)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540장 (구 219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동술집사
성경봉독	사사기 3:1-11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한 구원자	이태한목사
찬송	80장 (구 101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최득수 집사 3월 13일: 김교섭 장로

지난주일통계 | 1부 122명 2부 9명 학생부 26명 아동부 6명 유아부 9명 총계172명

건축헌금
지난주: \$130.00
총계: \$589,963.00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다함께
기도		원미경집사
성경봉독	사사기 3:1-11	인도자
설교	한 구원자	이태한목사
찬송	80장 (구 101장)	다함께
광고		인도자
축도		이태한목사

다음주 기도: 최장한집사

성서교독 16: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오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같이) 여호와와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쁨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편지

아래의 글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중국의 김강한 목사가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보낸 안부 편지와 저의 답장입니다.

지역이 지역인 만큼, 교회라는말, 성도, 하나님, 믿음 신앙등, 이런 단어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 회사는 교회, 직원은 성도, 안팎은 영육, 고개숙여 기원은 기도로 사장은 목사로 이해하시면서 읽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김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사장은 주안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섬기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강석봉 목사를 가르키는 듯 합니다.

이사장님
중국어입니다.

이삼일 외지에 갔다가 돌아와서야 뉴질랜드 지진 소식을 알았습니다. 놀랐고 궁금하여 곱히 몇자 적습니다. 지도를 보니 남섬의 중북부 정도에서 일어났군요.

이사장님의 회사와 집은 어디인지요? 피해는 없이 무사하신지요? 회사 식구들도 평안하신지요? 한국 언어 연수생들도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뉴스는 전하고 있군요. 먼저 안전 하다는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강석봉 사장도 [공기엔진] 사무실에서 빈적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답장주세요.

그럼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하시는 사업과 직원 모두에게 가득 가득 넘치기를...

중국에서 김사장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잘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은 어떠신지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늘 죄송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뉴질랜드는 두개의 큰 섬(남, 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년9월과 이번 지진 모두 남섬의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와 회사원들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북섬에 속한 우리 회사와는 거리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진이 일어난 곳은 생각외로 처참한것 같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지진이 난 도시 이름) 라는 도시에서 발생했는데 그곳에도 같은 계열의 회사 9개가 있고 우리 회사 지부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 지사장 중 한 분하고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첫 날은 연락이 되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직 천국 가지지 않았네요?' 물었더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인지 가는 사람들 있는데 하지 않네요' 라고 말하면서 '4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날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시티는 거의 폐허에 가깝고 아직 일반인들의 출입은 아직 제한되고 있다' 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도시의 상징적인 역사적인 건물인 대성당이 피해를 입어 훼손 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물론 성당의 기능을 상실한채 상징으로만 남아 있는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신적인 지주요, 영적인 마지노선의 훼손이 가져다주는 상처는 공황상태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회사지부중 한 곳은 건물에는 피해가 없고 한쪽 땅이 솟아오르고 비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닥친 재앙을 감당해야하는 Christchurch시민들의 아픔이 조속한 시일 내에 치료와 회복이 되어 도시의 이름대로 그 구실을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그곳에서도,피해를 입은 이곳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를 비롯한 많은 같은 계열의 회사를 위해 고개 숙여 기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조심하시며 안팎으로 강건하기를 저를 비롯하여 모든 회사원들이 늘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안 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이 사장이 보냅니다.